

■ 비전 2030 민간작업단 한국 경제 전망

# 2011년 잠재성장률 4%대로 급강하

오는 2011~2020년에는 취업자 수와 1인당 근로시간이 줄어드는데 따른 노동투입량 감소로 잠재성장률이 4%대 초반으로 떨어진다. 분석이 나왔다. 반면, 자본투입과 생산성은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핵심적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 취업자·근로시간 줄어

18일 비전2030 민간작업단에 따르면 2011~2020년의 잠재성장률은 4.3%로 2006~2010년의 4.9%에 비해 0.6%포인트 가량 하락한다.

잠재성장률은 1982~1990년 8.6%, 1991~2000년 6.3%, 2001~2005년 4.4% 등이며 2021~2030년에는 2.8%로 내려간다.

2011~2010년 잠재성장률의 구성항목(기여도)을 보면, 노동투입량(취업자수+근로시간)에 따른 성장률이 0.4%에서 -0.1%로 급강하한다. 이를 세분화하면 취업자수 감소로 인한 성장률은 0.7%에서 0.3%로, 근로시간 축소에 따른 성장률은 -0.3%에서 -0.4%로 각각 내려간다.

노동투입에 따른 잠재성장률의 과거 추이는 1982~1990년 1.1%, 1991~2000년 0.7%, 2001~2005년 0.6% 등이었으며 2021~2030년에는 -0.7%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자본투입에 따른 잠재성장률은 2006~2010년 2.3%에서 2011~2020년 2.2%로 약간 둔화되며 총요소 생산성에 따른 성장률은

각각 2.1%로 변화가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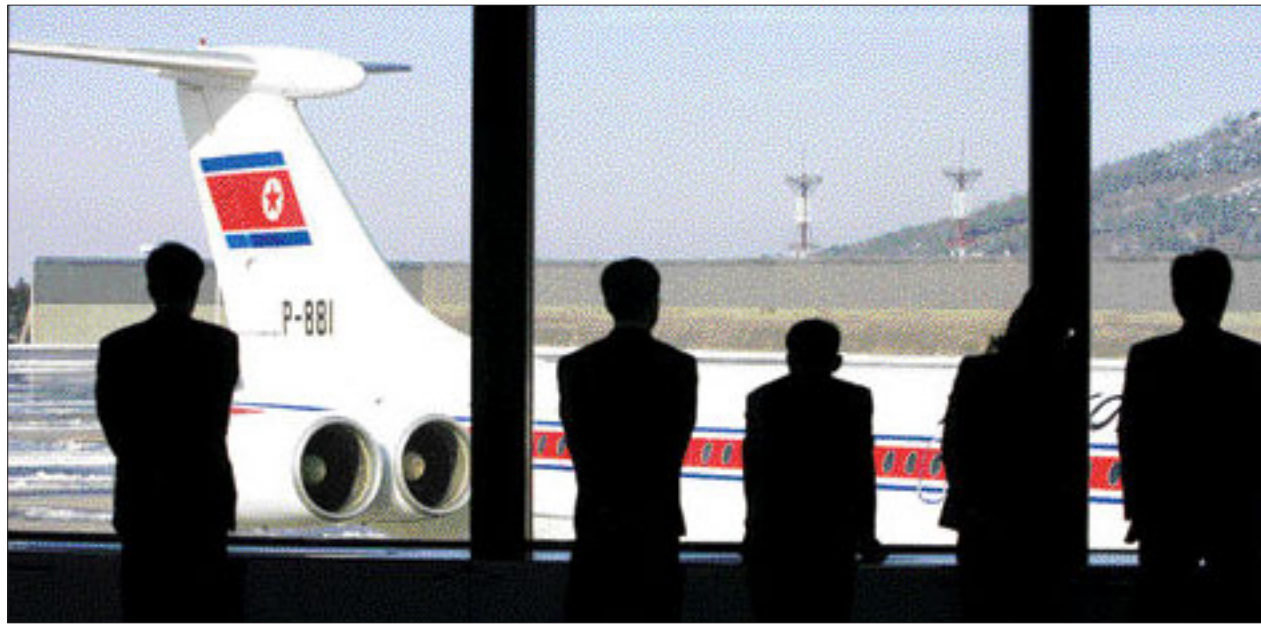
작업단은 1990년대 잠재성장률 하락은 노동과 생산성 증가의 문화에 의한 것이며 2000년대 초반에는 투자증가를 둔화로 잠재성장률이 떨어졌다고 밝혔다.

### 노동력 확보 대책 세워야

앞으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점차 낮아져 2020년대에 2%대로 하락하는 것은 취업자수와 1인당 근로시간 감소 때문이라고 작업단은 설명했다.

작업단은 한국도 노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인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하며 성인 근로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직업교육 훈련 확대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전 2030 민간작업단에는 한국 개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등 13개 기관의 전문가들과 전국 각 대학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개된 남북 하늘길 18일 오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방북단을 태운 북한의 고려항공 여객기가 김포공항에서 이륙준비를 하고 있다. 북 핵실험 이후 중단됐던 남북 직항로를 이용, 민간단체가 방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 檢, 인혁당 공판 ‘구형 없이’ 논고

## “현명한 판단 해달라”...가혹행위·절차 미비 사실상 인정

30여년 만에 법정에서 다시 진상이 가려지게 된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이례적으로 구형(求刑)하지 않고 재판을 끝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오전 10시 열린 ‘인혁당 재건위’ 재심에서 검찰은 증거조사가 모두 끝나자 의견진술을 통해 “재심에서 이 사건의 원 수사와 재판과정의 위법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재판

부는 재심 내용 및 당시 수사기록과 의견서, 재판기록 등을 참고해 법과 원칙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해 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과거 기록을 보면 재심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증거에도 동의했다. 그러나 한편 과거 기록이나 재심 공판에서 당시 수사기관의 고문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나타났고 적법절차가 준수되지 않았다는 증인 진술도 있었다”며 수사·재판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피고인측 변호인단으로 나선 김형태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이 재판은 과거 유신정권이 위헌적 유신헌법에 기초해 선정한 긴급조치를 바로잡기 위해 활동한 학생들을 억울한 죽음으로 내몬 사건에 대한 판단이며 피고인들은 무죄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에서 유·무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말한 뒤 결심 재판을 끝냈다. /연합뉴스

# “인간 질병 닦은 개 복제하겠다”

## ‘스니퍼’ 암개 복제 이병천교수팀

암개 3마리 복제에 성공한 서울대 수의대 이병천·김대용 교수는 18일 “앞으로 인간 질병을 닦도록 형질이 변환된

개를 복제해 질병 동물모델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천 교수는 이날 서울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스니퍼” 복제 이후 과학계에서 의구심을 품어온 개 복제가 가

능하다는 점을 다시 알렸을 뿐만 아니라 암수 복제를 통해 복제 개의 번식 능력 유무도 곧 검증할 수 있게 됐다”며 암개 복제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 교수는 “세포융합률·복제 효율이 각각 60~70%와 0.8%에 머물렀지만 이번 실험에서는 최대 90%에 이르는 세포 융합률과 25%의 복제 효율을 달성해 큰 진척을 거뒀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 현장과 시각

# “없던 일로...” 혈세만 날린다



## 송기동

시화2부 차장

새로 뽑힌 단체장들이 전임자 때 추진하던 사업을 바꾸거나 아예 없던 일로 하는 모습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 직선제 지방자치의 5·31 지방 선거 이후 전남지역 각 시·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같은 일들이 도를 넘어가고 있다.

최근 화순군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백지화하는 대신 ‘북한 실내 문화체육관’을 건립키로 방향을 선회했다.

화순문화회관은 200억원의 사업비로 2008년까지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천600여 평 규모로 추진하던 사업이었으나 신임 군수는 ‘수익성과 효율성’을 들어 문화예술회관과 실내 체육관 기능을 겸한 복합시설을 건립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미 실시설계비 7억원과 도시계획 변경 구역비 1억2천만원 등 9억원 가량의 혈세가 투자돼 예산낭비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곡성군은 전임 군수가 추진해온 ‘농어촌 복합 노인복지 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민자 577억원 유치에 불가능하고 사업전망이 어둡다며 아예 사업권을 전남도에 반납했다.

이 같은 ‘없던 일로’ 바람은 지역의 얼골인 슬로건과 CI(기업이미지) 교체로까지 번지고 있다. 영암군은 상표등록까지 완료하고 각종 지역 특산물 홍보에도 활용해 왔던 기존 지역 슬로건을 ‘氣(yeong-am)’에서 ‘NEW+영암’으로 바꿨고, 곡성군 역시 ‘골짜기 곡성’이 오히려 낙후지역으로 비칠 수 있다며 ‘자연속의 가족마을 곡성’으로 변경했다.

사업이나 슬로건을 백지화하면서 내세우는 명분은 한결 같다. 사업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당수 단체장들이 전임자를 꺾어내리거나 차별화하려는 속내에서 의도적으로 백지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지역 역점사업이 갑자기 백지화나 변경되면서 예산 낭비는 물론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되는 등 그 부작용은 고스란히 지역민에게 돌아오고 있다.

신임 단체장들이 전임자의 역점사업을 면밀히 재검토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지자체의 주요 정책이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흔들린다면 지역발전의 토대가 될 성장동력 구축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 song@kwangju.co.kr

**한가위 호텔**

한가위 호텔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한가위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맛있게 즐기세요.

# 한가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 연말연시모임
- 상견례
- 각종 세미나/수업/문화행사
- 불판차
- 고척면

TEL. 062) 234-5815, 234-1115

# Cell Banking

셀뱅킹은 건강함에 자신의 세포를 보관해준다기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11가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국적 건강보조제** | **한빛생명과학연구원** | TEL: 02-373-3478

## 직장에서, 사무실에서~ 송년모임!!!

원하시는 장소에서 식사와 이벤트를 한꺼번에!!!

- 1인 1회 식사(음료 포함) 1만5천원
- 2인 1회 식사(음료 포함) 2만5천원
- 3인 1회 식사(음료 포함) 3만5천원
- 4인 1회 식사(음료 포함) 4만5천원
- 5인 1회 식사(음료 포함) 5만5천원

**극제외식산업(주)** | TEL: (062) 267-2278, 265-2278